

상담자의 정당한 세상에 대한 일반적인 믿음과 인종/민족적 소수자에 대한 태도의 관계: 책임에 대한 귀인성향의 매개효과

백 근 영[†]

명지대학교

본 연구에서는 상담자의 정당한 세상에 대한 일반적인 믿음이 책임에 대한 귀인 성향을 매개하여 인종/민족적 소수자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인과적 구조모형을 설정하고 모형의 적합도 및 개별 변인의 영향력을 살펴보았다. 상담자 208명으로부터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한 결과, 첫째, 상담자의 정당한 세상에 대한 일반적인 믿음은 책임귀인을 매개로 인종/민족적 소수자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상담자의 정당한 세상에 대한 일반적인 믿음은 책임귀인, 인종/민족적 소수자에 대한 인식을 매개하여 인종/민족적 소수자에 대한 부정적인 정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상담자의 정당한 세상에 대한 일반적인 믿음은 책임귀인, 인종/민족적 소수자에 대한 인식을 매개하여 인종/민족적 소수자에 대한 행동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상담자의 정당한 세상에 대한 일반적인 믿음은 책임귀인, 인종/민족적 소수자에 대한 인식, 인종/민족적 소수자에 대한 부정적인 정서를 매개로 인종/민족적 소수자에 대한 행동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후속연구 및 다문화 상담 훈련과 교육에 대한 시사점을 논하였다.

주요어 : 정당한 세상에 대한 일반적인 믿음, 인종/민족적 소수자에 대한 태도, 다문화 상담, 책임귀인, 상담자의 태도

[†] 교신저자 : 백근영, 명지대학교 미래융합대학 심리치료학과, (03674)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거북골로 34
Tel : 02-300-0977, E-mail : kybaek@mju.ac.kr

인종/민족적 소수자란 한국사회에서 소수자 집단으로 살아가고 있는 결혼이주여성, 외국인 노동자, 북한이탈주민 등 이주 1세대들과 이들의 자녀들을 통칭하는 용어로, 2017년 외국인주민현황조사에 따르면, 현재 국내에 거주하는 이들의 수는 총 186만 명이며 전체 인구의 3.6%에 해당한다(행정안전부, 2018). 이는 2006년에 비해 약 3.5배 증가한 것으로, 정부에서는 2050년에 전체 국민의 10%가 인종/민족적 소수집단이 될 것으로 예측한다(행정안전부, 2018). 이러한 다인종/민족 시대를 맞아 인종/민족적 소수자들의 심리사회적 어려움이 우리 사회의 중요한 이슈로 대두되고 있다.

2018년 북한이탈주민 사회통합조사에 따르면, 서울에 사는 북한이탈주민의 14%가 경제적 어려움 또는 외로움 등으로 인해 극단적 선택을 고민한 적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통일부, 2019). 또한, 최근 뉴스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8년 사이 한국에서 숨진 네 팔 이주노동자는 총 143명이었는데, 이 중 30.1%(43명)가 자살한 것으로 나타났다(기민도, 2019). 이와 같이, 인종/민족적 소수자들의 다수가 한국 사회에서 경제적 어려움, 문화적 차이로 인한 소외감, 차별 등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김현아, 조영아, 김요완, 2014; 신동준, 2012; 황혜영, 김영순, 이춘양, 2018), 이로 인해, 우울, 공포불안, 스트레스, 자살사고 등의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양옥경, 박향경, 손가현, 2010; 최미경, 2015). 이에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 지방자치체, 사회복지관, 청소년 기관, 대학 내의 국제교류처 등 여러 기관들에서는 인종/민족적 소수자들의 정신건강 및 심리적 지원을 위한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김수정, 2015).

그러나 인종/민족적 소수자들이 상담서비스

를 통해 심리적 어려움에 있어서 적절한 도움을 받는지는 미지수이다. 실제로 상담을 받는 인종/민족적 소수자들 중 상당수가 빈번하게 조기종결 및 탈락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김수정, 2015). 그 이유에 대해 학계에서는 한국어 미숙, 익숙하지 않은 상담 문화 등과 같은 내담자 요인도 있으나, 상담자들의 다양한 문화적 배경에 대한 이해 부족 등 상담자 요인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김유경, 2010; 김혜영, 심혜원, 2014).

실증적인 연구들에 따르면,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상담자들은 다문화에 대한 교육이 부족한 채로 현장에 투입되고 있으며, 따라서 인종/민족적 소수자들에 대한 문화적 인식 수준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위주원, 2013; 주은선, 이현정, 2010). 여기서 문화적 인식은 자신의 가치와 신념이 문화의 소산임을 인식하고, 이러한 가치와 신념이 자신과 다른 문화권에 속하는 사람과의 관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민감하게 인식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다문화 상담 역량의 근본적인 요소로 여겨진다(Sue, Arredondo, & McDavis, 1992). 그러나 현장에 있는 한국의 상담자들은 자신의 인종/민족적 소수집단 내담자에 대한 부정적 생각을 인식하지 못한 채 상담을 진행하게 됨으로써, 상담관계가 형성되기 어렵고, 내담자와의 거리감을 두게 된다고 보고했다(양미진, 이동훈, 고흥월, 김영하, 남현주, 2012; 이현정, 2014). 인종/민족적 소수자들 중 하나인 북한이탈주민 내담자들도 문화적 민감성이 부족한 상담자의 태도가 상담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김윤정, 2018). 즉, 인종/민족적 소수집단 내담자들의 심리적 어려움을 효과적으로 돕기 위해서, 국내의 다문화 상담자 교육 및 훈련과정에서는 상담자들이

인종/민족적 소수자에 대한 자신의 태도를 민감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상담자의 인종/민족적 소수자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기제를 탐색함으로써 상담자들의 태도에 대한 민감성과 문화적 인식을 증진시키는 다문화 상담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이론을 바탕으로 인종/민족적 소수자에 대한 상담자의 부정적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을 탐색하고, 변인들 간의 인과적 관련성을 살펴 보았다.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과 책임귀인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Belief in a just world; 이하 BJW)이란 자신이 살고 있는 사회가 노력한 만큼의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세상이라고 믿고 싶은 욕구를 의미한다(김은하, 정보현, 2018; Lerner, 1977). 이러한 믿음은 실제 우리 사회가 모든 사람에게 정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유지될 가능성이 큰데, 이는 개인의 심리적 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Correia & Vala, 2004; Dalbert, 2002). 체제정당화이론(system justification theory; Jost & Hunyady, 2005)에 따르면 사람들은 현 체제를 유지시키고 이를 정당화하려는 욕구를 지니고 있다. 이는 현 체제를 부정하거나 체제에 변화가 일어나게 되면, 불확실함과 불안정감 등을 경험하게 되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즉, 사람들은 불안정감으로부터 회피하고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무의식적으로 체제 유지에 대한 정당성을 부과한다. 예를 들어, 만

약, 우리 사회가 노력한 만큼의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정당한 사회라는 믿음이 흔들리게 된다면, 사람들은 일상생활에서 무기력해지고, 자신의 삶에 대한 통제감을 상실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불안, 우울 등의 심리적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Lerner, 1977). 따라서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이 세상은 정당한 사회라는 기존의 믿음을 고수하려고 하며, 이러한 믿음이 흔들리는 상황에 처할 경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부정적인 감정을 해결하기 위해 정당한 세상에 대해 이전보다 더 강하게 믿게 된다(김은하, 김도연, 박한솔, 김수용, 김지수, 2017). 실증적인 연구들에서도 BJW가 높은 사람들일수록 행복, 삶의 행복 등 긍정적인 정서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김은하 & 전주원, 2019; Correia & Vala, 2004; Dalbert, 2002), 우울, 불안, 분노 등과 같은 부정적 정서 수준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김은하, 김도연, 김수용, 2016; Correia & Dalbert, 2007; Dalbert & Maes, 2002).

이와 같이 BJW는 개인내적으로는 삶의 적응을 높이고 긍정적인 효과를 제공해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BJW는 사회의 불평등과 차별을 영속시킨다(Hafer & Choma, 2009; Kay, Czaplinski, & Jost, 2008; Jost, Banaji, & Nosek, 2004). Lerner(1980)에 따르면, 사람들은 BJW를 고수하려는 욕구가 있는데, 문제는 이러한 욕구가 불공평한 상황을 경험하게 되었을 때도 발현된다는 것이다(Correia & Vala, 2003). 사람들은 타인의 불공정한 상황을 경험하거나 목격했을 때, 기존의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에 관련된 인지적 부조화가 발생하게 된다. 이때, 기존의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을 수정하거나 제거하기 보다는 불공정한 상황에 처한 타인을 탓하고 비난하거나,

그들의 욕구나 필요를 최소화시키고, 자신들의 생각을 정당화시킨다(Reichle, Schneider, & Montada, 1998; Smith, 1985). 즉, 불공정한 상황에 처한 개인을 희생양(victimization)으로 삼고 자신의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을 유지함으로써, 불안과 통제감 상실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는 것이다(Correia & Vala, 2003). 이러한 희생양은 여성(Kleinke & Meyer, 1990), 동성애자(Hettinger & Vandello, 2014), 인종/민족적 소수자(Neville, Coleman, Falconer, & Holmes, 2005) 등 사회의 비주류집단들로 차별과 불공정한 대우를 받는 집단들이다. 실증적인 연구들에서도 BJW가 사회적 불평등을 지속시키는데 기여하며, 가난을 폄하하는 태도를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은하, 정보현, 2018; Begue & Bastounis, 2003; Smith, 1985). 이와 같이 BJW는 주류집단 자신이 자각하지 못한 채로 사회 내의 비주류집단, 인종/민족적 소수자들의 차별과 편견을 영속화시킬 수 있다.

BJW의 이러한 상반된 효과에 대해 선행연구들에서는 BJW를 개인적 믿음(BJW-self)과 일반적인 믿음(BJW-others)로 구분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김은하, 정보현, 2018; Lipkus, Dalbert, & Siegler, 1996). BJW-self는 개인의 지각에 포함된 것으로 자신이 살고 있는 사회가 자신이 원하는 만큼 보상해줄 수 있다고 믿는 것이라면, BJW-others는 사회에 대한 해석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세상이 얼마나 정당한지에 대해 믿는 것을 의미한다. 실증적인 연구에서는 BJW-self는 주관적 안녕감, 심리적 적응 등의 긍정적 변인들과 관련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으며(김은하, 전주원, 2019; 김은하, 정보현, 2018; Dalbert, 1999; Lipkus et al., 1996), BJW-others는 가난, 집단 따돌림 피해자, 동성애자에 대한

태도 등 소수자에 대한 부정적 태도와 관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김은하, 전주원, 2019; 김은하, 정보현, 2018; Fox, Elder, Gater, & Johnson, 2010). 특히, Fox 등(2010)의 연구에서는 청소년들의 BJW-self와 BJW-others의 수준이 각각 주관적 안녕감과 집단 따돌림의 피해자에 대한 태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비교하였다. 그 결과, BJW-self는 주관적 안녕감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BJW-others는 집단 따돌림 피해자에 대한 태도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내 연구인 김은하와 정보현(2018)은 참여자들을 두 집단으로 분류하고 각 집단에 BJW-self와 BJW-others를 각각 점화시킨 뒤, 가난에 대한 부정적 태도를 측정하였다. 연구 결과, BJW-others에 노출된 참여자들이 BJW-self에 노출된 참여자들보다 가난에 대해 더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들은 BJW이론을 바탕으로 상담자의 인종/민족적 소수자에 대한 태도를 설명할 때, 상담자의 BJW-others의 수준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한편, Lerner(1980)에 따르면, 이 세상이 정당하다고 믿는 사람일수록 비주류집단이 경험하는 어려움의 원인을 개인의 책임으로 전가하고 귀인하게 됨으로써 이들을 부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이러한 책임귀인 경향성은 사회변화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무의식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욕구 중 하나로, 특히, 인종 차별과 같은 특정 문제에서 가해자가 자신과 동일한 내집단에 속해있다고 지각할수록, 가해자에서 피해자로 문제에 대한 책임을 전가시키는 경향성이 커질 수 있다(Aguiar, Vala, Correia, & Pereira, 2008). 예를 들어, 미국의 경

우, 백인들은 흑인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것에 대해, 흑인들이 인종차별로 인해서 취업, 승진 등에서 사회 구조적인 어려움을 경험한다고 지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열심히 일하지 않기 때문으로 귀인하는 성향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Crocker, Luhtanen, Broadnax, & Blaine, 1999). 최근 연구들에서는, 특히, BJW-others의 수준이 높을수록 책임귀인 경향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Be`gue & Bastounis, 2003; Sutton & Douglas, 2005), 예를 들어, BJW-others가 높은 사람들은 AIDS나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에 대해서 그 책임을 그들의 탓으로 돌리는 경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Kogut, 2011). 또한, BJW-others는 노인과 가난한 사람들과 같은 소수집단 구성원들의 탓을 하고 이들을 폄하하는 것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Sutton & Winnard, 2010). 이러한 책임귀인 경향성은 피해자 또는 비주류집단 구성원들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Sullivan, Ong, La Macchina와 Louis(2016)의 연구에서는 BJW 수준이 높은 호주인들일수록 호주 원주민에게 범죄의 책임을 전가하고, 이는 이들에 대한 차별적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록, Sullivan 등(2016)의 연구에서 BJW-others에 초점을 맞춰 연구하지 않았지만, 이는 BJW-others와 인종/민족적 소수집단에 대한 태도 간의 관계에 책임귀인이 매개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국내 연구들에 따르면, BJW-others에 노출된 한국 대학생들은 가난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김은하, 정보현, 2018), BJW-others가 높은 한국 대학생들은 동성애자에 대한 부정적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은하, 전주원, 2019). 한편, 한국인

들의 책임귀인 성향은 인종/민족적 소수자에 대한 태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나진, 2017; 유진이, 2015). 예를 들어, 유진이(2015)의 연구에서는 부정적인 외국인 범죄에 대한 보도에 노출된 수용자들 중 범죄에 대한 책임을 개인의 문제로 인식하는 수용자들일수록 외국인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은 BJW-others, 책임귀인, 인종/민족적 소수자에 대한 태도 간의 인과적 관계를 한국 상담자들에게도 적용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BJW-others의 수준이 높은 한국 상담자일수록, 인종/민족적 소수집단 구성원들의 문제의 원인을 개인과 가족의 문제로만 치부하고, 이는 상담자의 인종/민족적 소수집단 구성원들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로 연결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상담자의 BJW-others, 책임귀인, 인종/민족적 소수자들에 대한 태도 간의 인과적 구조모형을 설정하고, BJW-others와 인종/민족적 소수자들에 대한 태도 간의 관계를 책임귀인이 매개하는지를 확인하고자 했다.

인종/민족적 소수자에 대한 태도

태도란 특정 대상을 선호하거나 선호하지 않는 방식으로 평가하는 경향성으로, 그 대상에 대한 신념, 감정, 행동을 포함하는 일련의 세트를 의미한다(Eagly & Chaiken, 1993; Prislin & Crano, 2008). 인종/민족적 소수자에 대한 태도란 인종/민족적 소수자에 대해 개인이 지니고 있는 긍정적 또는 부정적으로 생각, 느낌, 특정 행동을 유발하는 경향성을 의미한다. Breckler(1984)에 따르면, 태도는 인지, 정서, 행동의 측면으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 있다. 첫

제, 태도의 인지적 요소(cognitive component)란 대상에 대한 생각이나 신념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종/민족적 소수자에 대한 고정관념과 같은 인식이 이에 해당될 수 있다. 둘째, 태도의 정서적 요소(affective component)는 대상에 대한 정서적 반응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종/민족적 소수자에 대한 긍정적 또는 부정적 감정들이 포함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대상에 대한 태도 중 행동적 요소(behavioral component)에는 인종/민족적 소수자와 직간접적으로 접촉하거나 관계를 맺고자 하는 욕구나 의지 등이 여기에 포함될 수 있다.

상담자의 인종/민족적 소수자에 대한 태도 역시 인지, 정서, 행동의 측면으로 나누어서 살펴볼 필요성이 있는데, 이는 각각의 요소들이 인종/민족적 소수집단의 내담자들과의 상담에 다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먼저, 인종/민족적 소수자들에 대한 상담자의 고정관념, 부정적 인식 등 부정적인 인지적 태도는 인종/민족적 소수집단 내담자의 문제를 개념화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Gushue, 2004; Ridley, 2005). 예를 들어, Gushue(2004)의 연구에 따르면, 인종/민족적 소수자에 대해 고정관념과 편견이 있는 상담자들은 이러한 고정관념과 편견을 바탕으로 소수집단 내담자가 보이는 심리적 반응들을 해석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들의 문제와 어려움을 잘못 진단할 가능성 역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인종/민족적 소수자들에 대한 상담자의 부정적 정서는 내담자와의 작업동맹을 저해하고, 내담자에 대한 관심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Katz & Hoyt, 2014; Spanierman, Poteat, Wang, & Oh, 2008). 예를 들어, Katz와 Hoyt(2014)의 연구에 따르면, 인종/민족적 소수자들에 대한 부정적 정서를 지니

고 있는 상담자들일수록 소수집단 내담자들이 상담자인 자신을 좋아하거나 존중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각하는 경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인종/민족적 소수자들에 대한 상담자의 부정적 행동의도들은 인종/민족적 소수자와의 상담 장면에서 실현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Burkard & Knox, 2004; Ridley, 2005). 예를 들어, 인종/민족적 소수자와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것에 대해 거부감이 있는 상담자들은 백인들과 하는 상담에 비해, 인종/민족적 소수집단 내담자와의 상담을 일찍 종결한다거나, 상담의 과정에서 눈을 마주치지 않거나, 내담자의 이야기를 명료화하기 위한 질문을 하지 않는 등, 다양한 회피 전략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Ridley, 2005).

한편, 국내 문헌들에서는 상담자의 인종/민족적 소수자에 대한 고정관념과 편견이 인종/민족적 소수자와의 상담과정에서 내담자와의 거리감을 느끼게 만드는 등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상담자의 인종/민족적 소수자에 대한 태도 중 인지적 측면의 중요성을 시사했다(양미진 등, 2012; 이현정, 2014). 한국 상담자들의 인종/민족적 소수자에 대한 정서적 반응과 행동의도에 관련한 연구들은 찾을 수 없었지만, 간호사들과 사회복지사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에서 인종/민족적 소수자에 대한 정서적 반응과 행동의도가 의료서비스 및 복지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안정원, 2015; 최종술, 2013). 예를 들어, 외국인 환자를 대할 때, 불안을 느꼈던 한국 간호사들은 외국인 환자와 치료적 신뢰관계를 형성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고했고(안정원, 2015). 인종/민족적 소수자와 친밀한 관계를 맺고자 하는 사회복지사일수록 문화적으로

다양함을 추구하는 복지 서비스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려고 하는 성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최종술, 2013). 이러한 연구들은, 한국 상담자들의 인종/민족적 소수자에 대한 정서적 반응과 행동의도도 상담의 각각 다른 요소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시사하며, 따라서 한국 상담자들의 인종/민족적 소수자에 대한 태도를 인지, 정서, 행동적 측면으로 나누어서 각각의 측면들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기제를 살펴보는 것이 요구된다.

기존 연구들에 따르면,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은 책임귀인을 매개하여 인종/민족적 소수자에 대한 인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Kaiser, DyrenForth, Hagiwara, 2006; Uhlmann, Brescoll, & Machery, 2010). 예를 들어, Kaiser 등(2006)의 연구에 따르면 BJW 수준이 높은 백인들은 흑인들이 경험하는 차별을 그들 개인의 문제로 귀인하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럴수록 흑인들을 폄하하고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록, 이 연구들에서는 BJW-others의 수준을 측정하지 않았으나, 이를 바탕으로 한국 상담자들의 BJW-others와 인종/민족적 소수자에 대한 인식 간의 관계를 책임귀인이 매개할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다. 한편, BJW-others, 책임귀인, 인종/민족적 소수자에 대한 부정적 감정 간의 인과적 관계에 관련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Seby와 Johnston(2012)의 연구에서는 BJW 수준이 높은 미국인들의 경우, 내집단에 비해 외집단에 대해서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는 경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Banks와 Valentino(2012)의 연구에서는 흑인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유는 이들이 열심히 노력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개인 책임귀인 성향이 높은 백인들일수록, 흑인들에 대한 분

노나 불편함의 감정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을 종합하면, 한국 상담자들의 책임귀인 경향성이 BJW-others와 인종/민족적 소수집단에 대한 부정적 감정 간의 관계를 매개할 가능성이 시사된다. 마지막으로, BJW-others, 책임귀인, 인종/민족적 소수자에 대한 행동의도 간의 인과적 관계에 관련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Van Soest(1996)의 연구에서는 BJW 수준이 높은 백인 사회복지사들은 인종/민족적 소수자, 여성, 장애인들을 돕기 위한 적극적인 사회 행동을 할 의도가 낮은 것으로 보고되었다. Sniderman과 Piazza(1993)의 연구에서는 만약 흑인이 더 열심히 일한다면, 백인만큼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백인들일수록 흑인들을 돕거나 그들의 권리를 보장해주는 우대정책에 반대하고 적극적으로 이를 지지하는 행동을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들을 종합해보면, 상담자의 책임귀인 경향성이 BJW-others와 인종/민족적 소수집단에 대한 행동의도 간의 관계를 매개할 가능성이 시사된다.

합리적 행동이론

본 연구에서는 합리적 행동이론(Theory of Reasoned Action; Fishbein & Ajzen, 1981)을 바탕으로 태도의 세 요소인 인지, 정서, 행동의도 간의 인과적 관련성을 설정했다. 합리적 행동이론에 따르면, 행동의 직접적인 결정요인은 행동을 수행하려는 의도이며, 이러한 행동의도는 그 행동에 대한 태도와 주관적 규범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Norman & Smith, 1995). 먼저, 여기서 태도란 정서적인 측면만 국한하여 정의한 것으로, 특정 행동에 대해 호의적이거나

나 또는 비호의적인 평가를 하는 정도를 의미한다. 두 번째 요인인 주관적 규범이란, 어떤 행동을 하는데, 주변 인물들이 그 행동에 대해 어떤 압력 또는 기대를 할 것이라고 지각하는 규범적 신념과 이에 부응하려는 동기가 이에 포함된다(Fishbein & Ajzen, 1981). 합리적 행동이론은 주로 소비자 심리학에 관련하여 연구가 진행되어 왔으나, 최근 인종/민족적 소수자에 대한 행동의도를 설명하기 위한 이론적 틀로서 활용되고 있다(김금미, 2010/2011; 선곡유화, 서우석, 2019). 예를 들어, 대학생의 탈북자(김금미, 2011)와 결혼이주여성(김금미, 2010)에 대한 정서적 태도와 고정관념이 이들에 대한 행동과 행동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 상담자의 인종/민족적 소수자에 대한 인식과 정서가 이들에 대한 행동의도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시사한다. 뿐만 아니라,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지도사(김경화, 2011), 간호대학생(김경숙, 2012)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들에서도 다문화에 대한 인식이 다문화에 대한 정서적 반응과 다문화에 대한 행동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한국 상담자의 인종/민족적 소수자에 대한 인식이 이들에 대한 정서와 행동의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한편, 행동경향성에 고정관념과 같은 인지적 측면보다는 정서가 더 강력한 영향을 미친다는 기존 연구를 바탕으로(Cuddy, Fiske, & Glick, 2007), 선행연구들에서는 인종/민족적 소수자에 대한 인식과 행동의도 간의 관계를 정서적 측면이 매개하는지를 살펴보았으나 상반된 연구결과가 도출되었다(김금미, 안상수, 2014; 선곡유화, 서우석, 2019). 선곡유화와 서우석의 연구에서는 정서가 인식과 행동의도 간의 관계를 완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

나, 김금미와 안상수의 연구에서는 부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의 차이는 인종/민족적 소수집단에 대한 정서적 태도에 대한 조작적 정의와 측정도구의 차이로 유발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선곡유화와 서우석의 연구에서는 정서적 태도를 다문화에 대한 정서적 태도로 정의하고 이를 다문화에 개방적이고, 수용적이고 공존하는 것에 대한 선호도로 측정하였고, 김금미와 안상수의 연구에서는 동남아계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해서 대학생들이 지니고 있는 혐오 등의 정서적 반응으로 이들에 대한 정서적 태도를 측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상담자의 인종/민족적 소수자에 대한 정서적 태도를 인종/민족적 소수자에 대한 직접적인 부정적 정서반응을 살펴보는 것이기에, 김금미와 안상수의 연구를 바탕으로 상담자의 인종/민족적 소수자에 대한 인식과 행동의도 간의 관계를 부정적 정서가 부분 매개할 것으로 예상했다.

연구의 목적 및 연구 가설

종합하여, 본 연구에서는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 이론과 합리적 행동이론과 관련 선행 연구들을 토대로 정당한 세상에 대한 일반적인 믿음이 책임귀인, 인종/민족적 소수자에 대한 인식, 부정적 정서를 매개로 인종/민족적 소수자에 대한 행동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모형을 설정하고 경험적 자료를 통해 모형의 적합도 및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상담자의 정당한 세상에 대한 일반적인 믿음이 개인 내적으로는 심리적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전략이지만, 상담자로서 이러한 믿음을 유지하는 것이 인종/민족적 소수

자와의 상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구체적으로 상담자의 인종/민족적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에 대한 보다 통합적인 관점을 제시하여 다문화 상담역량을 증진시키기 위한 교육 과정 또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가설 모형은 그림 1과 같으며, 구체적인 연구 가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상담자의 정당한 세상에 대한 일반적인 믿음은 책임귀인을 매개로 인종/민족적 소수자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둘째, 상담자의 정당한 세상에 대한 일반적인 믿음은 책임귀인을 매개로 인종/민족적 소수자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셋째, 상담자의 정당한 세상에 대한 일반적인 믿음은 책임귀인을 매개로 인종/민족적 소수자에 대한 행동의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넷째, 상담자의 정당한 세상에 대한 일반적인 믿음은 책임귀인, 인종/민족적 소수자에 대한 인식을 매개하여 인종/민족적 소수자에 대한 부정적인 정서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다섯째, 상담자의 정당한 세상에 대한 일반적인 믿음은 책임귀인, 인종/민족적 소수자에 대한 인식을 매개하여 인종/민족적

소수자에 대한 행동의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여섯째, 상담자의 정당한 세상에 대한 일반적인 믿음은 책임귀인, 인종/민족적 소수자에 대한 인식, 인종/민족적 소수자에 대한 부정적인 정서를 매개로 인종/민족적 소수자에 대한 행동의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방 법

연구 대상 및 절차

본 연구에 참여한 상담자는 총 230명이었으며, 온라인으로 설문이 실시되었다.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상담관련 전공 학부를 졸업했거나 석사과정 이상인 상담자들만 참여하도록 독려했다. 불성실하게 응답했거나 모든 문항에 응답하지 않은 14명, 상담경력이 1개월 미만인 5명, 외국 거주 기간이 10년 이상이거나 자신을 인종/민족적 소수자라고 지각한 응답자 3명을 제외한 208명의 자료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연구 참여자들 중 남성은 23명(11.1%), 여성은 181명(87.0%)이었으며, 무응답은 4명(1.9%)이었으며, 평균 연령은 31.68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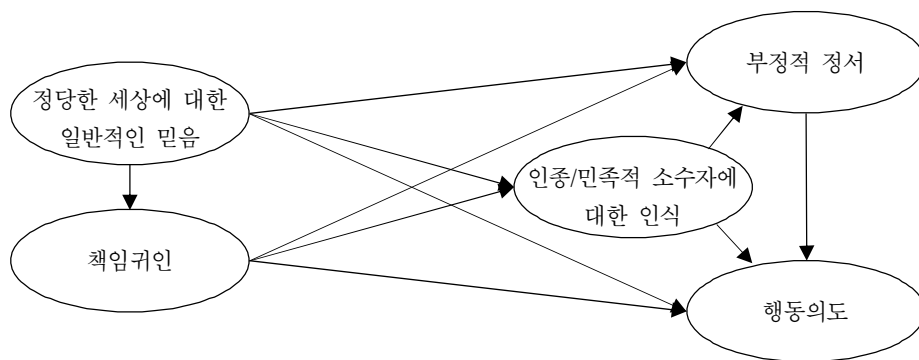


그림 1. 연구 모형

($SD=5.42$)였다. 연구 참여자들의 학력은 학부 졸업이 12명(5.8%), 석사과정생이 47명(22.6%), 석사졸업생이 128명(61.5%), 박사과정생이 11명(5.3%), 박사졸업생이 6명(2.9%), 무응답이 4명(1.9%)으로 나타났다. 연구 참여자들의 거주 지역은 서울특별시가 85명(40.9%), 인천 및 경기도가 61명(29.3%), 대전 및 충청도가 24명(11.5%), 부산, 대구 및 경상도가 10명(4.8%), 광주 및 전라도가 20명(9.6%), 강원도가 4명(1.9%)이었으며, 무응답이 4명(1.9%)이었다. 연구 참여자들의 상담경력은 1개월부터 240개월까지 평균 35.21개월($SD=35.66$)이었으며, 다문화 상담 경력은 0개월에서 108개월까지 평균 3.24개월($SD=10.10$)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외에 체류경험이 있는 사람은 총 49명(23.55%)으로 평균 9.56개월($SD=25.16$)이었으며, 1주일에 한번 이상 연락하는 인종/민족적 소수집단 친구가 있는 사람은 총 38명(18.27%)이었다.

측정 도구

정당한 세상에 대한 일반적인 믿음

정당한 세상에 대한 일반적인 믿음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Lucas, Alexander, Firestone과 Lebreton(2007)이 개발한 후, Lucas, Zhdanova와 Alexander(2011)가 개정하였고, 김은하 등(2017)이 한국어로 번안 및 타당화한 한국어판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 척도(Belief in a Just World Scale: K-BJWS)의 하위척도인 정당한 세상에 대한 일반적인 믿음(BJW-others)를 사용하였다. K-BJWS는 두 개의 축을 바탕으로 4개의 하위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첫 번째 축은 개인(self)과 타인(others)으로 나뉘는 축으로, BJW-self는 자신이 사는 세상은 정당하며, 보상을 적절히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의

미하며, BJW-others는 우리 사회가 타인이 노력한 만큼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세상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의미한다(김은하 등, 2017). 두 번째 축은 분배공정성(distributive justice:DJ)과 절차공정성(procedural justice:PJ)으로 나뉘는 축으로, BJW-DJ란 노력에 대한 결과가 공정한지에 대해 지각하는 정도를 의미하며, BJW-PJ는 노력에 대한 보상을 결정하는 과정이 공정한지에 대해 지각하는 정도를 의미한다(김은하 등, 2017). 즉, K-BJWS는 DJ-self, DJ-others, PJ-self, PJ-others의 4가지 하위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에서 BJW-others에 해당하는 DJ-others와 PJ-others가 사회적 태도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것(Lucas 등, 2011; 김은하 등, 2017; 김은하, 전주원, 2019)을 바탕으로 정당한 세상에 대한 일반적인 믿음에 해당하는 두 하위척도인 DJ-others와 PJ-others를 사용하였다. DJ-others와 PJ-others척도는 각 4문항씩으로 본 연구에서는 총 8개의 문항이 사용되었으며, 각 문항은 7점 척도(1=전혀 동의하지 않음, 7=매우 동의함)로 측정한다. DJ-others척도의 예시문항으로는 “나는 사람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보상과 처벌을 받으며 살고 있다고 생각한다,” PJ-others척도의 예시문항으로는 “사람들은 보통 다른 사람들을 정당한 방식으로 대한다.”가 있다. 선행연구에서 DJ-others 척도의 내적일치도 계수는 .90, PJ-others의 내적일치도 계수는 .88로 나타났다(김은하 등, 2017). 본 연구에서는 DJ-others척도의 내적일치도 계수는 .89, PJ-others의 내적일치도 계수는 .90으로 나타났다.

책임귀인

책임귀인 성향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Goodall, Slater와 Myers(2013)의 사회책임귀인 측정문항을 바탕으로 유진이(2015)가 개발한 범죄발생 책임귀인에 대한 판단 척도를 본 연구에 맞게 각색하여 사용하였다. 유진이(2015)는 범죄발생 책임은 개인 책임인지, 사회 책임인지 이분법적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범죄사건의 발생에 대한 본인책임 2문항, 사회책임 2문항으로 나누어서 범죄발생 책임귀인을 측정했다. 본 연구에서는 범죄발생영역에 국한되어 인종/민족적 소수자들이 경험하는 어려움의 원인을 개인의 문제로 귀인하는 경향을 측정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Crocker 등(1999)이 개발한 체제비난척도(System Blame Scale)를 참고하여 책임 귀인의 영역들을 추가하여 문항을 개발하였다. Crocher 등(1999)의 연구에서는 미국사회에서 흑인들이 직면하고 있는 편견들과 문제의 영역들을 8개로 언급했는데, 범죄피해자로 오인받는 비율, 실업률, 10대 임신률, 학업중단률, 사형선고률, 교도소수감비율, 편부모가정비율, AIDS관련 질병비율이 이에 해당된다. 본 연구에서는 우선, 한국 사회에서 인종/민족적 소수자들이 경험하는 어려움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기 위해 선행연구들과 신문기사 등을 조사했다(예, 박다혜, 2019; 백민경, 2011; 이길상, 2014; 이사야, 2019). 그 결과, 가정폭력피해자, 경제적 어려움, 학교부적응, 학업중단률, 실형선고률, 범죄가해자로 오인 받는 비율, 편부모비율, 질병에 걸리는 비율이 한국 사회에서 인종/민족적 소수자들이 경험하는 어려움으로 총 8개의 영역을 추출했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인종/민족적 소수자들의 8가지 어려움에 대해 개인책임귀인 2문항, 사회책임귀인 2문항을 만들어 총 32개의 문항을 개발했다. 예를 들어, 경제적 어려움

관련 영역의 경우 개인책임귀인 문항으로 “인종/민족적 소수자들이 가난, 실업 등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것은 본인이 책임을 져야하는 문제다,” “인종/민족적 소수자들이 가난, 실업 등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것은 그들이 잘 적응하지 못했기 때문이다.”가 있다. 사회책임귀인 문항으로는 “인종/민족적 소수자들이 가난, 실업 등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것은 한국 사회의 책임이 크다,” “인종/민족적 소수자들이 가난, 실업 등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이들에 대한 차별과 편견이 심각하기 때문이다.”가 있다.

총 32개의 책임귀인문항들이 한국 문화적 상황에서 적절한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한국인 일반시민 32명을 대상으로 평정을 실시하였다. 평정자들의 평균 나이는 35.29세 ($SD=14.77$), 이 중, 남성은 15명, 여성은 16명, 무응답 1명이었다. 평정자들은 각 문항이 한국의 사회문화적 맥락에 잘 설명하고 있는지 정도를 6점 척도로 평정했는데, 그 결과, 실형선고률, 편부모비율, 질병에 걸리는 비율에 관련된 문항들은 3점 이하로 나타나 삭제했다. 즉, 본 연구에서 사용된 책임귀인척도는 총 20개의 문항으로, 5개의 영역(가정폭력피해자, 경제적 어려움, 학업중단률, 학교부적응, 범죄가해자로 오인받는 비율)에 각 4개의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체 척도에서 개인책임귀인 문항은 10문항, 사회책임귀인 문항은 10문항이었다. 유진이(2015)의 연구를 참고하여, 본 연구에서 사용된 책임귀인척도는 5점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5=매우 그렇다)로 측정했으며, 개인책임귀인문항의 점수가 높을수록, 인종/민족적 소수자의 어려움을 개인의 문제로 귀인하는 성향이 높은 것을 말하며, 사회

책임귀인문항의 점수가 높을수록, 인종/민족적 소수자의 어려움을 사회의 문제로 귀인하는 성향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개인책임문항만 분석에 사용되었으나, 설문 목적을 숨기기 위해 보조문항(filler item)을 사용한 Crocher 등(1999)을 참고하여, 사회책임귀인문항도 함께 측정했다. 유진이(2015)의 연구에서 개인책임귀인 판단의 내적일치도계수는 .80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81로 나타났다.

인종/민족적 소수자에 대한 인식

인종/민족적 소수자에 대한 인식을 측정하기 위해, Ponterotto, Burkard, Rieger와 Grieger(1995)가 개발한 신속차별척도(Quick Discrimination Scale: QDI)를 백근영, 서영석, 김애란, 박금란(2019)에서 역번역한 한국판 신속차별척도(K-QDI)의 하위척도인 인지적 태도(QDI-cognitive)를 사용하였다. 백근영 등(2019)의 연구에서는 먼저 연구자들이 각각 QDI를 한글로 번안하고 토론을 통해 다르게 번역한 문항들을 합의했다. 둘째, 영어와 한국어를 이중으로 사용하는 심리학 전공 대학원생이 번안된 문항들을 한글로 다시 역번역하였다. 셋째,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심리학 전공 미국인이 역번역된 문항들과 QDI의 원문항들을 비교하여 어감이 다른 문항들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했다. 마지막으로 연구자들이 수정보완을 거쳐 한국판 신속차별척도(K-QDI)를 완성하였다. QDI-cognitive는 9개의 문항으로 문항의 점수가 높을수록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고 인종/민족에 관련된 문제에 민감하게 인식하며, 인종/민족적 소수집단에 대한 편견 수준이 낮은 태도를 지니는 것을 시사한다. QDI-cognitive는 5점 척도로 평정하며(1=전혀 그렇지 않다 5=매우 그렇다), 문항의 예로는,

“나는 인종/민족적 소수자의 인권문제를 다룬 책이나 영화를 보는 것이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등이 있다. 국외 연구들에서 상담자들의 QDI-Cognitive의 수준은 다문화 관련 훈련 또는 교육과정을 통해 증진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Dickson, Jepsen, & Barbee, 2008; Soble, Spanierman, & Liao, 2011), 국내의 대학생들의 QDI-Cognitive의 수준이 높을수록 인종/민족적 소수자에 대해 공감하지 못했고, 이들에 대한 죄책감도 덜 느끼며, 이들을 위한 우대정책에도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백근영 등, 2019).. 선행연구에서 QDI-cognitive의 내적일치도 계수는 .74(백근영 등, 2019)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에서는 .78로 나타났다.

인종/민족적 소수자에 대한 부정적 감정

인종/민족적 소수자에 대한 정서적 태도를 측정하기 위해, Fiske, Cuddy, Glick와 Xu(2002)와 김혜숙 등(2003)에서 추출된 집단 간의 주요 감정을 바탕으로 김혜숙, 김도영, 신희천, 이주연(2011)이 제작한 감정척도 중 부정감정에 해당하는 문항들을 선별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 김혜숙 등(2011)의 감정척도는 긍정감정(즐겁다, 기쁘다, 정이 간다, 존경할만하다, 좋다), 부정감정(불안하다, 혐오스럽다, 불쾌하다, 화가 난다, 불편하다, 두렵다), 연민(불쌍하다, 슬프다)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부정감정만 분석에 사용되었으나, 설문 목적을 숨기기 위해, 긍정감정과 연민감정도 함께 측정되었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부정감정 척도는 총 6문항으로 인종/민족적 소수자에 대해 느끼는 감정을 6점 척도로 응답한다(1=전혀 그렇지 않다, 6=매우 그렇다). 점수가 높을수록 인종/민족적 소수자에 대해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는 것을 의미한다. 선행연구에서

부정감정 척도의 내적일치도 계수는 .89(김혜숙 등, 2011)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83으로 나타났다.

인종/민족적 소수자에 대한 행동의도

인종/민족적 소수자에 대한 행동의도적 태도를 측정하기 위해, Esses와 Dovidio(2002)가 개발한 행동의도 지수(Behavioral Intentions Index: BII)를 백근영 등(2019)에서 역번역한 한국판 행동의도지수(K-BII)를 사용하였다. 백근영 등(2019)의 연구에서는 먼저 연구자들이 각각 BII를 한글로 번안하고 토론을 통해 다르게 번역한 문항들을 합의했다. 이때, BII의 문항들 중 “흑인(black person)”을 “인종/민족적 소수자”로 수정하였다. 둘째, 영어와 한국어를 이중으로 사용하는 심리학 전공 대학원생이 번안된 문항들을 한글로 다시 역번역하였다. 셋째,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심리학 전공 미국인이 역번역된 문항들과 BII의 원문항들을 비교하여 어감이 다른 문항들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했다. 마지막으로 연구자들이 수정보완을 거쳐 한국판 행동의도지수(K-BII)를 완성하였다. K-BII는 12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인종/민족적 소수자들과 접촉하거나 친밀한 관계를 맺고자 하는 의지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K-BII는 7점 척도로 평정하며(1=전혀 없다, 7=매우 있다), 문항의 예로는, “만일 기회가 주어진다면, 인종/민족적 소수자와 가까운 친구가 될 의향이 얼마나 있습니까?” 등이 있다. 선행연구에서 K-BII의 내적일치도 계수는 .90(백근영 등, 2019)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에서는 .95로 산출되었다.

사회적 바람직성

본 연구에서는 응답자들이 사회적 바람직성

의 경향으로 인해 왜곡된 반응을 하게 되는 것을 통제하기 위해 사회적 바람직성 변인을 분석에 포함시켰다. 사회적 바람직성을 측정하기 위해, 김용석(2010)이 개발한 사회적 바람직성 척도(Social Desirability Scale: SDS-24)를 사용하였다. SDS-24는 총 2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응답자가 실제로 생각하고 느끼는 데로 응답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승인을 높이는 방식으로 응답하려는 성향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SDS-24는 자기기만과 인상관리의 하위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자기기만은 총 16개의 문항으로 자신을 실제보다 더 좋은 기술과 태도를 소유한 인물로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무의식적 성향을 의미한다. 인상관리는 총 8개의 문항으로 자신에 대한 이미지를 호의적으로 만들어내려는 의식적 성향을 의미한다. SDS-24는 5점 척도로 평정하며(1=전혀 그렇지 않다, 5=매우 그렇다), 자기기만 척도의 예시문항으로는 “나는 내가 한 행동에 대해 절대 후회하지 않는다.”가 있으며, 인상관리 척도의 예시문항으로는 “남의 도움을 얻기 위해 거짓말이나 마음에 없는 말을 한 적이 있다.”가 있다. 김용석(2010)의 연구에 따르면 SDS-24의 수준이 높은 사람일수록 사회복지관 이용에 대해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연구에서 SDS-24의 내적일치도 계수는 .79로 나타났으며(김용석, 2018), 본 연구에서는 .74로 산출되었다.

자료분석

본 연구의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AMOS 18.0을 사용하여 연구에 설정한 모형의 적합도를 검증하였다. 이 때, 자료가 정규분포 가정에 충족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각 측정

변인의 왜도와 첨도의 절대값이 각각 2와 7을 초과하지 않는지 확인하였다(Lei & Lomax, 2005). 또한 본 연구에서는 Russell, Kahn, Spoth와 Altmaier(1998)의 연구를 바탕으로 단일 요인으로 이루어진 책임귀인, 인종/민족적 소수자에 대한 인식, 인종/민족적 소수자에 대한 부정적 정서, 인종/민족적 소수자에 대한 행동 의도에 대해 각 변인 별로 세 개의 꾸러미(item parcels)를 제작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잠재변인 별로 최대우도법을 활용하여 단일 요인을 가정한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했다. 그 다음, 문항들을 요인 부하량 절대값에 따라 순위를 매겨 가장 큰 부하량을 지닌 문항과 가장 작은 부하량을 지닌 문항을 하나의 짝으로 묶어 순서대로 세 꾸러미에 연속적으로 할당했다. 모형의 적합도를 확인하기 위해 χ^2 뿐만 아니라 Tucker-Lewis Index(TLI: .90이상일 경우 적합한 것으로 해석한다), Comparative Fit Index(CFI: .90이상일 경우 적합한 것으로 해석한다), 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RMSEA: .10이하일 경우 적합한 것으로 해석한다)을 함께 살펴보았다(Bentler, 1990; Bentler & Bonett, 1980).

한편, AMOS에서는 다중매개효과 검증 할 때, 개별 간접효과에 대한 추정치를 제공해주지 않는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팬텀변인(phantom variable)을 설정해, 부트스트랩 절차를 적용하여 변인들의 개별 간접효과를 확인하였다(배병렬, 2011). 팬텀변인은 가상변수로, 다중매개효과 검증시 모형의 적합도와 모수치에 영향을 주지 않는 변수이다. 따라서 팬텀변인을 설정하여, 부트스트랩 절차를 활용하면 AMOS에서 곱의 형태로 된 간접효과를 하나의 단일계수로 표현해낼 수 있기에, 개별 간접효과의 크기를 추정할 수가 있다. 예를 들어, 본

연구의 가설 모형에서 BJW-others와 인종/민족적 소수집단에 대한 부정적 정서 간의 간접효과가 유의미하고, 모든 직접 경로가 유의미하다면, BJW-others가 책임귀인과 인종/민족적 소수자에 대한 인식을 매개로 부정적 정서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와 BJW-others가 책임귀인만 매개하여 부정적 정서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가 존재할 수 있다. 만약 팬텀변수를 활용한다면, 각각 개별 간접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하고 그 크기를 추정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최종모형이 선정된 뒤, 이중매개가 존재하는 경로에서 산출될 수 있는 개별 간접효과들을 검증하기 위해, 팬텀변인들을 만들었다. 이때, 선행변인인 BJW-others와 팬텀변인들 간의 경로는 최종모형에 있는 경로와 동일한 것으로 제약했다. 예를 들어, 최종모형에서 BJW-others와 책임귀인간의 경로를 a로 설정하고, BJW-others가 책임귀인에 해당하는 팬텀변수에 이르는 경로들을 a로 설정하였다. 마지막으로 부트스트랩 절차를 활용하여 개별 간접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부트스트랩 절차는 Shrout와 Bolger(2002)가 제안한 방법으로, 모수의 분포를 추정하기 어려울 때 모수의 경험적 분포를 생성시키는 방법으로 근사 표준오차 및 신뢰구간, 유의확률을 구하는 유용한 방법 중 하나이다. 본 연구에서는 2000개의 표본을 원자료(N=208)로부터 생성하여 신뢰구간 95%에서 간접효과의 유의도를 검증하였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바람직성이 인종/민족적 소수자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선행연구에 따라(Janus, 2010). 사회적 바람직성과 변인들의 상관을 확인하였다. 그 결과, 사회적 바람직성과 정당한 세상에 대한 일반적인 믿음($r=.37, p<.01$), 사회적 바람직성과 인종/민족적 소수자에 대한 부정적 감정($r=-.29$,

$p < .01$), 사회적 바람직성과 인종/민족적 소수자에 대한 행동의도($r = .22, p < .03$) 간의 유의미한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사회적 바람직성을 공변인으로 채택하고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 인종/민족적 소수자에 대한 부정적 감정과 행동의도로 가는 직접경로를 설정하여 그 영향을 통제하였다.

$\chi^2(59, N=208) = 98.925, p = .040; CFI = .99, TLI = .98, RMSEA = .038(90\% \text{ 신뢰구간} = .01-.06)$. 또한, 모든 측정변인들의 요인부하량은 .65에서 .94 사이에 분포하여 잠재변인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적재된 것으로 나타났다($p < .001$). 따라서 14개의 측정변인이 5개의 잠재변인을 구인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결 과

구조모형 검증

기술통계

모형검증에 앞서, 측정변인들의 평균 및 표준편차, 왜도와 첨도, 사회적 바람직성을 통제 한 후, 측정 변인 간 편상관계수를 산출하였다(표 1). 대체로 변인 간에 유의미한 상관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의 두 하위 요인 중 분배공정성에 대한 일반적인 믿음과 절차공정성에 대한 일반적인 믿음은 책임귀인과 정적 상관을 보였다. 책임귀인은 인종/민족적 소수자에 대한 인식과는 부적 상관, 부정적인 정서와는 정적 상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종/민족적 소수자에 대한 인식과 행동의도는 서로 정적 상관을 보였으며, 인종/민족적 소수자에 대한 부정적 정서는 인식과 행동의도와 서로 부적 상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가설모형인 매개모형은 자료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chi^2(61, N=208) = 99.138, p = .027; CFI = .99, TLI = .98, RMSEA = .041(90\% \text{ 신뢰구간} = .14-.60)$. 총 10개의 직접경로 중 5개가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Martens(2005)의 제안에 따라 유의미하지 않은 경로를 제거한 모형을 수정모형으로 설정하고 χ^2 차이검증을 통해 가설모형과 적합도를 비교하였다. 수정모형은 자료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chi^2(57, N=208) = 101.644, p = .024; CFI = .99, TLI = .98, RMSEA = .040(90\% \text{ 신뢰구간} = .15-.59)$. χ^2 차이 검증을 통해 가설모형과 수정모형의 적합도를 비교한 결과, 두 모형은 적합도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Delta\chi^2(5, N=208) = 6.514, p = .259$. 따라서 가설모형에서 3개의 직접경로가 유의미하지 않다는 점과 가설모형과 경쟁모형이 적합도 면에서 차이가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상대적으로 더 간명한 수정모형을 최종모형으로 채택하였다. 수정모형은 인종/민족적 소수자에 대한 인식 변량의 19%, 부정적 감정 변량의 15%, 행동의도 변량의 44%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에서와 같이, 5개의 직접경로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정당한 세상에 대한 일반적인 믿음 → 책임귀인, 책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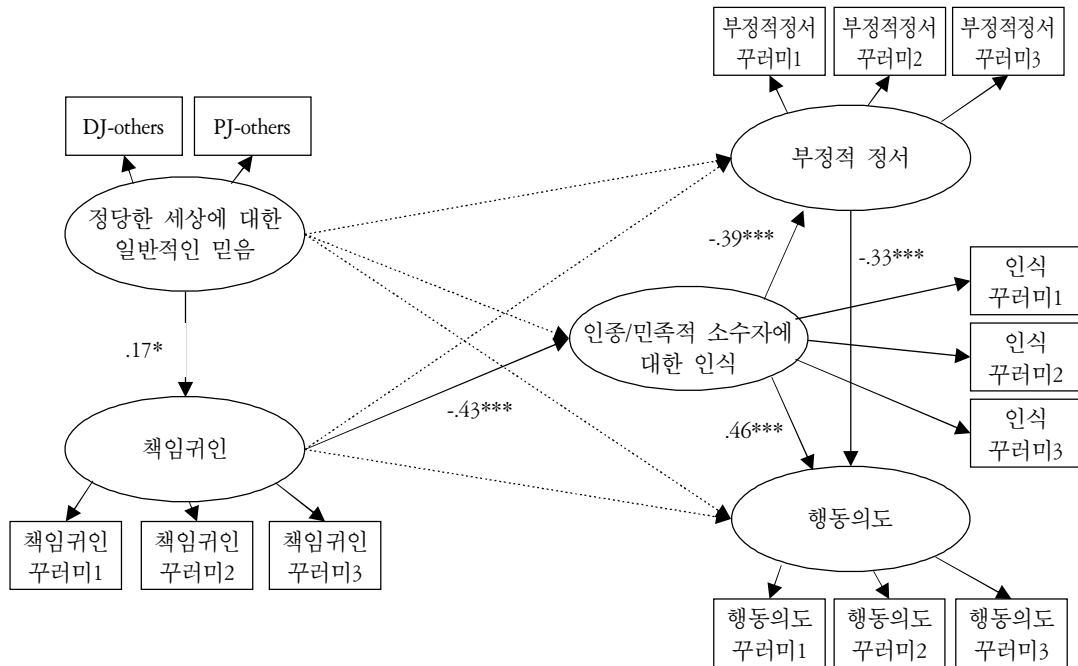
측정모형 검증

본 연구에서는 본 분석에 앞서,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측정변인들이 해당 잠재변인을 적절하게 구인하는지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측정모형은 자료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1. 측정변인의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및 사회적 바람직성을 통제한 측정변인 간 상관(N=208)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	-													
2	.70**	-												
3	.10	.11	-											
4	.10	.16*	.79**	-										
5	.14*	.20**	.57**	.51**	-									
6	-.13	-.07	-.33**	-.23**	-.18*	-								
7	-.11	-.09	-.34**	-.30**	-.22**	.62**	-							
8	-.04	-.05	-.36**	-.30**	-.25**	.50**	.48**	-						
9	-.04	-.01	.18*	.09	.14*	-.26**	-.15*	-.19**	-					
10	-.03	-.02	.13	.12	.11	-.30**	-.17*	-.20**	.68**	-				
11	-.03	.02	.18*	.12	.09	-.31**	-.25**	-.26**	.63**	.72**	-			
12	.03	.03	-.17*	-.13	-.16*	.48**	.33**	.35**	-.40**	-.41**	-.39**	-		
13	.05	.02	-.16*	-.12	-.17*	.48**	.31**	.36**	-.39**	-.44**	-.40**	.88**	-	
14	-.00	.01	-.12	-.10	-.15*	.55**	.41**	.37**	-.33**	-.39**	-.37**	.87**	.88**	-
M	3.93	3.67	3.77	3.93	4.08	3.96	3.56	3.21	2.59	2.40	2.16	5.03	5.09	5.25
SD	1.00	1.04	0.98	0.97	1.00	0.62	0.69	0.78	0.91	0.89	0.88	1.16	1.20	1.05
왜도	0.09	0.19	-0.05	-0.23	-0.58	-0.62	-0.39	0.20	0.06	0.30	0.63	-0.61	-0.55	-0.49
첨도	-0.55	-0.21	0.39	0.34	0.43	1.06	0.95	0.23	-0.53	-0.30	0.18	0.14	-0.07	0.34

주. N = 208. 1=분배공정성에 대한 일반적인 믿음(DJ-others); 2=절차 공정성에 대한 일반적인 믿음(PJ-others); 3-5=책임귀인꾸러미1-3; 6-8=인종/민족적 소수자에 대한 인식 꾸러미 1-3; 9-11=인종/민족적 소수자에 대한 부정적 정서 꾸러미1-3; 12-14=인종/민족적 소수자에 대한 행동의도 꾸러미1-3.
* $p < .05$. ** $p < .01$.



* $p < .05$, *** $p < .001$.

그림 2. 최종 모형

귀인 → 인종/민족적 소수자에 대한 인식, 인종/민족적 소수자에 대한 인식 → 인종/민족적 소수자에 대한 부정적 정서, 인종/민족적 소수자에 대한 부정적 정서 → 인종/민족적 소수자에 대한 행동의도).

간접효과 검증

매개모형이 자료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팬텀변수를 설정한 뒤, 부트스트랩 절차에 따라 2000개의 표본을 원자료(N=208)로부터 생성하여 신뢰구간 95%에서 개별 간접효과의 유의도를 검증하였다. 즉, 간접효과의 신뢰구간이 0을 포함하지 않을 경우 $\alpha=.05$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간접효과 검증 결과를 표 2에 제시하였다. 정당한

세상에 대한 일반적인 믿음은 책임귀인을 통해 인종/민족적 소수자에 대한 인식에 부적 영향(β=-.05, $p<.05$)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β=-.05, $p<.05$). 정당한 세상에 대한 일반적인 믿음이 인종/민족적 소수자에 대한 인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점을 고려했을 때, 책임귀인이 정당한 세상에 대한 일반적인 믿음과 소수자에 대한 인식 간의 관계를 완전매개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가설1(“상담자의 정당한 세상에 대한 일반적인 믿음은 책임귀인을 매개로 인종/민족적 소수자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은 지지되었다. 한편, 연구 결과, 책임귀인은 인종/민족적 소수자에 대한 부정적 정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설2(“상담자의 정당한 세상에 대한 일반적인 믿음은 책임귀인을

표 2. 매개효과 검증

경로	간접효과 (95% 신뢰구간)
BJW-others → 책임귀인 → 인식	-.05*(-.108, -.006)
BJW-others → 책임귀인 → 인식 → 부정적 정서	.02*(.003, .062)
BJW-others → 책임귀인 → 인식 → 행동의도	-.04*(-.096, -.006)
BJW-others → 책임귀인 → 인식 → 부정적 정서 → 행동의도	-.01*(-.033,-.002)

주. N=208. 표에 제시된 계수는 비표준화 계수임. BJW-others=정당한 세상에 대한 일반적인 믿음, 인식=인종/민족적 소수자에 대한 인식, 부정적 정서=인종/민족적 소수자에 대한 부정적 정서, 행동의도=인종/민족적 소수자에 대한 행동의도.

* $p < .05$.

매개로 인종/민족적 소수자에 대한 부정적 정서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는 기각되었다. 또한, 책임귀인에서 인종/민족적 소수자에 대한 행동의도에 이르는 경로도 유의미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설3(“상담자의 정당한 세상에 대한 일반적인 믿음은 책임귀인을 매개로 인종/민족적 소수자에 대한 행동의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도 기각되었다.

정당한 세상에 대한 일반적인 믿음은 책임귀인과 인종/민족적 소수자에 대한 인식을 통해 인종/민족적 소수자에 대한 부정적 정서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 = .02, p < .05$). 이는 책임귀인과 소수자에 대한 인식이 정당한 세상에 대한 일반적인 믿음과 소수자에 대한 부정적 정서간의 관계를 매개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가설 4(“상담자의 정당한 세상에 대한 일반적인 믿음은 책임귀인과 인종/민족적 소수자에 대한 인식을 매개로 인종/민족적 소수자에 대한 부정적 정서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는 지지되었다. 정당한 세상에 대한 일반적인 믿음은 책임귀인과 인종/민족적 소수자에 대한 인식을 통해 인종/민족적

소수자에 대한 행동의도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 = -.04, p < .05$). 이는 책임귀인과 소수자에 대한 인식이 정당한 세상에 대한 일반적인 믿음과 소수자에 대한 행동의도 간의 관계를 매개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가설 5(“상담자의 정당한 세상에 대한 일반적인 믿음은 책임귀인과 인종/민족적 소수자에 대한 인식을 매개로 인종/민족적 소수자에 대한 행동의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는 지지되었다. 마지막으로, 정당한 세상에 대한 일반적인 믿음은 책임귀인과 인종/민족적 소수자에 대한 인식, 부정적 정서를 통해 인종/민족적 소수자에 대한 행동의도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 = -.01, p < .05$). 이는 책임귀인, 소수자에 대한 인식, 부정적 정서가 정당한 세상에 대한 일반적인 믿음과 소수자에 대한 행동의도 간의 관계를 매개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가설 6(“여섯째, 상담자의 정당한 세상에 대한 일반적인 믿음은 책임귀인, 인종/민족적 소수자에 대한 인식, 인종/민족적 소수자에 대한 부정적인 정서를 매개로 인종/민족적 소수자에 대한 행동의도에 영향을 미칠 것

이다.”)은 지지되었다.

논 의

본 연구에서는 정당한 세상에 대한 일반적인 믿음과 인종/민족적 소수자에 대한 행동의도 간의 관계를 책임귀인, 인종/민족적 소수자에 대한 인식, 부정적 정서가 매개하는 인과적 구조모형을 설정하고, 208명의 상담자를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여 모형의 적합도와 변인들의 직간접효과를 검증하였다. 우선, 가설모형은 자료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이론과 합리적 행동이론을 토대로 정당한 세상에 대한 일반적인 믿음, 책임귀인, 인종/민족적 소수자에 대한 인식, 부정적 정서, 행동의도 간의 인과적 관계를 설정한 것이 타당함을 의미한다. 각 변인의 직간접효과에 대한 검증결과와 이에 대한 시사점을 논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당한 세상에 대한 일반적인 믿음은 책임귀인을 통해 인종/민족적 소수자에 대한 인식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첫 번째 연구가설이 지지되었다. 이는 우리 사회가 다른 사람들에게 정당하다고 믿는 상담자일수록 인종/민족적 소수자들의 어려움이 개인의 탓이라고 지각하게 되며, 이는 상담자들이 인종/민족적 소수자들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Lerner(1980)의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이론, Major, Quinton와 McCoy(2002), Crocker 등(1999), Kaise 등(2006)의 국외 연구들에서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은 불공정한 상황에 처한 소수자들의 문제를 그들의 문제로 치부해버림으로서 이들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를 유발한다는 결과를 지지하는 결과이다. 한편, 기존의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에 관련한 국내 연구들에서는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은 가난 또는 동성애자에 대한 태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은하, 전주원, 2019; 김은하, 정보현, 2018).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정당한 세상에 대한 일반적인 믿음이 인종/민족적 소수자에 대한 인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책임귀인을 매개하여 소수자에 대한 인식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이론을 바탕으로 인종/민족적 소수자에 대한 태도를 살펴볼 때, 책임귀인 변인이 중요하게 고려되어야함을 시사한다.

둘째, 정당한 세상에 대한 일반적인 믿음은 책임귀인을 통해 인종/민족적 소수자에 대한 부정적 정서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두 번째 연구가설이 기각되었다. 뿐만 아니라, 정당한 세상에 대한 일반적인 믿음은 책임귀인을 통해 인종/민족적 소수자에 대한 행동의도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세 번째 연구가설이 기각되었다. 즉, 우리 사회가 다른 사람들에게 정당하다고 믿는 상담자일수록 인종/민족적 소수자들의 어려움을 그들의 탓으로 돌려 이들에 대해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거나 친밀한 관계를 맺기 꺼리게 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소수자에 대한 분노나 불편감을 연구한 Banks와 Valentino(2012)의 연구 또는 소수자 우대 정책에 관련된 행동을 연구한 Snideman과 Piazza(1993)의 연구결과와는 일치하지 않는 결과이다. 그러나 선행연구들에서는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과 인종/민족적 소수자에 대한 태도 중 정서 또는 행동의

도 중 하나만 종속변인으로 채택하여 연구했다는 점에서 본 연구와 차이가 있다. 선행연구들에 따르면, 소수자에 대한 정서적 반응에는 이들에 대한 인식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정이화, 2014), 소수자에 대한 행동의도에는 이들에 대한 인식과 정서적 반응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경화, 2011; 김혜숙 등, 2011). 즉, 정당한 세상에 대한 일반적인 믿음이 책임귀인만 매개하여 부정적 정서나 행동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책임귀인과 소수자에 대한 인식을 매개하여 영향을 미치는 이중매개효과가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셋째, 정당한 세상에 대한 일반적인 믿음은 책임귀인과 인종/민족적 소수자에 대한 인식을 매개로 부정적인 정서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네 번째 연구가설이 지지되었다. 이는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 이론과 합리적 행동이론, 관련 선행연구(Fox 등, 2010)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즉, 본 연구 결과, 우리 사회가 다른 사람들에게 정당하다고 믿는 상담자일수록 인종/민족적 소수자들의 어려움을 개인의 탓이라고 지각하게 된다. 이는 소수자들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유발하고, 이러한 인식은 이들에 대한 불편감, 분노와 같은 부정적인 감정을 증진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인종/민족적 소수자에 대한 상담자들의 부정적 감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혀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선행연구들에 따르면, 인종/민족적 소수자에 대해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는 상담자들은 인종/민족적 소수집단 내담자들과 상담할 때 내담자의 문화적 배경을 민감하게 고려하는 것이 어려운 것으로 보고 되었으며(Spanierman et al., 2008), 소수집단 내

담자들과 작업동맹을 형성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Constantine, 2007). 더욱이, 인종/민족적 소수집단 내담자의 경우, 자신의 상담자가 자신 또는 자신의 소속 인종/민족 집단에 대해 부정적인 감정을 지니고 있음을 자각했을 때, 작업동맹, 상담만족도가 떨어질 뿐만 아니라 심리적 어려움이 심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Owen Tao, Imel, Wampold, & Rodolfa, 2014; Owen, Tao, Leach, & Rodolfa, 2011). 즉, 상담자의 인종/민족적 소수자에 대한 부정적 감정은 직간접적으로 내담자의 심리적 어려움을 가중시킬 가능성이 존재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부정적 감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밝혀냄으로서 추후 다문화 상담 훈련 또는 교육과정 개발에 관련한 시사점을 제공했다.

넷째, 정당한 세상에 대한 일반적인 믿음은 책임귀인, 인종/민족적 소수자에 대한 인식을 매개로 소수자에 대한 행동의도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다섯 번째 연구가설이 지지되었다. 뿐만 아니라, 정당한 세상에 대한 일반적인 믿음은 책임귀인, 인종/민족적 소수자에 대한 인식, 부정적 감정을 매개로 소수자에 대한 행동의도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여섯 번째 연구가설이 지지되었다. 먼저, 본 연구 결과, 인종/민족적 소수자에 대한 인식과 행동의도, 인식과 부정적 정서, 부정적 정서와 행동의도 간의 직접적인 경로가 모두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나, 인식과 행동의도 간의 관계를 부정적 정서가 부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김금미와 안상수(2014)의 연구에서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대학생의 고정관념이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정서적 반응을 부분매개하여 이들에 대한 행동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이는

상담자가 인종/민족적 소수자에 대해서 긍정적인 인식을 지닐수록 이들에 대해 불안하거나 불쾌하거나 두려운 부정적인 감정이 감소하며, 이를 통해 이들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자 하는 의지가 높아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정당한 세상에 대한 일반적인 믿음이 책임귀인, 인종/민족적 소수자에 대한 인식, 부정적 감정을 매개하여 행동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 이론에서 가정하는 변인들의 인과적 관계가 우리나라 상담자의 인종/민족적 소수자에 대한 태도를 설명하는 데에도 적합함을 의미한다. 관련하여 본 연구결과는 상담자들이 믿고 있는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이 어떤 과정을 거쳐 상담자들의 인종/민족적 소수자에 대한 행동의도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설득력 있는 해석을 제공한다. 여기서 인종/민족적 소수자에 대한 행동의도란 소수자들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자 하는 의지를 뜻하는 것으로, 상담자들의 소수자에 대한 우호적 관계에 대한 의지는 소수집단 내담자와의 상담과정과 작업동맹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변인 중 하나이다(김은하, 박승민, 2011; 서준호, 이희경, 2014; 이정숙, 금명자, 2019). 뿐만 아니라, 인종/민족적 소수자와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것에 대해 거부감이 있는 상담자들은 인종/민족적 소수자들과의 상담을 맡기를 꺼려하거나, 일찍 종결하는 등 차별적인 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다(Ridley, 2005). 본 연구결과를 적용해보면, 이 세상이 정당하다고 믿는 상담자들일수록 인종/민족적 소수집단이 겪는 어려움을 그들의 책임으로 지각할 가능성이 높다. 이는 이들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유발하게 되고,

이로 인해 상담자들은 소수자들에 대한 불편감, 분노 등의 부정적 감정을 느끼게 된다. 결과적으로 상담자들은 인종/민족적 소수자들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자 하는 의지가 감소할 수 있으며 이는 인종/민족적 소수집단 내담자에게 차별로 인식될 가능성이 높다.

본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은 이론적 시사점들을 제공한다. 우선, 현재까지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을 적용해서 상담자의 인종/민족적 소수자에 대한 태도를 설명한 연구가 국내외에서 수행된 적이 없기 때문에, 본 연구 결과는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이론의 적용 범위가 상담자의 인종/민족적 소수자에 대한 태도로 확장되었다는데 의의를 지닌다. 또한,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이론에서는 정당한 세상에 대한 일반적인 믿음 수준이 높은 사람들은 소수자들이 경험하는 문제의 원인을 소수자 개인에게 귀인하기 때문에, 이들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형성하게 된다고 제안했으나, 실증적인 연구들에서는 정당한 세상에 대한 일반적인 믿음과 사회적 태도간의 직접적인 관련성만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었다(김은하, 정보현, 2018; 김은하, 전주원, 2019). 본 연구에서는 책임귀인이 정당한 세상에 대한 일반적인 믿음과 인종/민족적 소수자에 대한 인식 간의 관계를 완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나, 추후 정당한 세상에 대한 일반적인 믿음과 사회적 태도에 관련된 연구에서 책임귀인 변인이 중요하게 고려되어야함을 확인시켜주었다. 뿐만 아니라, 본 연구 결과에 따르면, 정당한 세상에 대한 일반적인 믿음과 책임귀인 변인들은 직접적으로 인종/민족적 소수자에 대한 부정적 감정과 행동의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인종/민족적 소수자에 대한 인식을 완전 매개하여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기존에 대학생(김금미, 안상수, 2014; 선곡유화, 서우석, 2019), 간호대학생(김경숙, 2012), 다문화가족 방문교육 지도사(김경화, 2011)를 대상으로 확인된 인종/민족적 소수자에 대한 인지, 정서, 행동 간의 인과적 관계를 상담자에게도 적용가능함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즉, 추후 상담자의 인종/민족적 소수자에 대한 정서와 행동 의도를 설명할 때, 이들에 대한 인식이 중요하게 고려해야하는 선행변인임을 시사한다.

본 연구결과는 상담자 훈련 및 교육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시사점들을 제공한다. 본 연구결과, 상담자의 정당한 세상에 대한 일반적인 믿음이 인종/민족적 소수자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정당한 세상에 대한 일반적인 믿음은 개인 내적으로 불안을 경감시켜주기 때문에, 자신이 이러한 믿음을 지니고 있는지 또는 이 믿음이 어떠한 결과를 가져올지에 대해 스스로 인식하기 어렵다(McClelland, Koestner, & Weinberger, 1989). 즉, 상담자들은 자신의 정당한 세상에 대한 일반적인 믿음이 어떤 수준이고, 이것이 인종/민족적 소수집단 내담자에 대해 어떤 생각, 감정, 행동의지를 불러일으키기에 대해 인식하기 어렵다. 따라서 다문화상담 훈련 및 교육과정에서는 상담자들이 자신의 정당한 세상에 대한 일반적인 믿음 수준을 살펴보고 이것이 상담자, 내담자, 상담과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에 대해서 탐색해보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 더욱이, Lerner(1980)의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이론과 Correia와 Vala(2003)의 실증적인 연구에 따르면,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 수준이 높은 사람이라도 불공정한 상황에 처한 소수자가 무고하다고 인식하게 되면, 소수자가 처한 문제의

원인이 소수자 개인의 책임이 아니라고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다수집단 사람들은 암환자, 성폭력 피해자 등과 같이 소수자들이 스스로 통제할 수 없고 예측할 수 없는 사건에 처한 경우라고 지각할수록 이들에 대해 긍정적으로 지각하고, 이들이 처한 어려움이 이들의 탓이나 책임이 아니라고 지각했다. 따라서 다문화 상담훈련 또는 교육과정에서 상담자들이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 이론에 대한 학습과 더불어 인종/민족적 소수자들이 처한 어려움이 사회의 차별과 편견과 같이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상황과 사건들에서 비롯되었음에 대해 학습한다면, 이는 상담자의 소수자에 대한 태도 변화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상담자의 책임귀인 성향이 정당한 세상에 대한 일반적인 믿음과 인종/민족적 소수자에 대한 인식 간의 관계를 완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다문화 상담 훈련 및 교육기관에서 상담자들이 자신의 책임귀인 경향성을 인식하고 변화시킬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예를 들면, 다문화 상담 훈련 및 교육기관에서는 Mezirow(1991)의 전환학습이론(transformative learning)을 바탕으로 상담자들이 자신의 책임귀인 경향성을 인식하고 변화시킬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을 것이다(백근영, 2017). 전환학습이란 학습자들이 기존에 갖고 있는 참조체계(reference)를 전환하여 분별력있고, 개방적이고, 성찰적일 수 있도록 돕는 학습 방법이다. 전환학습을 통해 학습자들은 1) 자신의 관점을 변화시켜야하는 필요성을 깨닫고, 2) 평등한 관점에서 나의 관점과 타인의 관점을 이해하고, 3) 새로운 대안의 관점을 탐색하여 4) 이를 실제 행동으로 옮기게 된다. 먼저,

교수자는 훈련생들에게 책임귀인 경향성이 높은 상담자들이 상담장면에서 보일 수 있는 예시 반응들을 제시할 수 있다. 교수자는 훈련생들로 하여금 이러한 반응들이 차별적인지 아닌지를 토론하게 함으로서 자신들의 책임귀인 경향성을 깨달을 수 있도록 촉진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책임귀인 성향이 높은 상담자의 예시 반응 중 하나로, “당신은 우리사회의 소수자가 아니에요, 문제를 이겨낼 수 있는 한 사람이지요.”가 있을 수 있다. 훈련생들은 이러한 예시 반응이 차별 반응이 아니라고 인식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내담자의 인종적/민족적 배경이 내담자의 삶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무시하고 내담자의 문제의 원인을 내담자 자신으로 한정했다는 점에서 차별적 반응으로 분류될 수 있다(Ridley, 2005). 훈련생들은 예시 반응들이 차별적인지를 검토해보으로써 자신의 책임귀인 경향성이 변화가 필요함을 인식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 단계에서 교수는 각 예시의 차별적 반응들을 바탕으로 개발한 스크립트를 제공해 훈련생들로 하여금 이를 시연해보게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훈련생들은 상담자의 책임귀인 경향성이 인종/민족적 소수집단 내담자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을 깨닫게 되고, 관점과 생각의 변화에 대한 준비가 완료될 것이다. 마지막 단계에서 교수는 훈련생들에게 상담자의 차별적인 반응을 대안할 수 있는 비차별적인 반응을 탐색해보고, 새로운 스크립트를 만들어보게 할 수 있다. 이는 새로운 대안적인 관점을 찾고 실제 행동으로 옮기려는 시도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전환학습방법을 통해, 상담훈련생들은 자신들의 책임귀인 경향성을 깨닫고, 상담 장면에서 소수집단 내담자의 인종/민족적 배경을 인식하는 것의 중요성을 체감할 수 있을

것이며, 비차별적 상담자의 모습을 재현해봄으로써 실질적인 변화를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상담자의 인종/민족적 소수자에 대한 인식이 이들에 대한 정서와 행동의도를 설명하는데 중요한 변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설명했듯이, 인종/민족적 소수자에 대해 부정적으로 느끼는 상담자일수록 이들과의 작업동맹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으며(예, Katz & Hoyt, 2014), 인종/민족적 소수자와 친밀하고자하는 의도가 적은 상담자일수록 상담 장면 안에서 내담자에게 인종/민족적 차별을 행할 수 있다(Ridley, 2005). 따라서 상담자가 자신의 인종/민족적 소수집단에 대한 인식 수준을 점검하고 변화시키는 것이 필요한데, 그 방법의 일례로 문화적 자서전(cultural autobiography)이 있다. 문화적 자서전이란 자신의 삶의 경험들을 사회문화적 맥락에서 살펴봄으로써 인종, 민족, 문화에 관련된 편견과 고정관념의 배경을 분석하는 것을 의미한다(백근영, 2017; 임민정, 2014). 임민정(2014)에 따르면, 문화적 자서전쓰기는 자신의 신념과 가정을 반성해보는 기회를 제공하며, 이러한 비판적 반성은 자신의 인식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변화시킬 수 있는 촉진제가 될 수 있다. 즉, 상담자들은 문화적 자서전을 작성해봄으로써 삶의 과정에서 구체적인 편견이나 차별을 목격하거나 관련한 뉴스를 시청한 경험이 있었는지 또는 다양한 인종과 민족의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환경에서 성장했는지 등 어떠한 삶의 경험들이 현재 자신의 편견과 고정관념에 영향을 미쳤는지 탐색해볼 수 있다. 이렇게 자신의 삶의 경험을 인종, 민족, 문화적 맥락에서 돌아봄으로써 상담자들은 자신의 인종/민족적 소수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

이 어디서 비롯되었는지를 살펴볼 수 있을 것이며, 이는 자신의 인종/민족적 소수자에 대한 태도를 변화시키는데 중요한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 및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논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총 208명의 상담자를 대상으로 총 5개의 잠재변인, 14개의 측정변인을 포함한 구조방정식모형을 사용하여 가설을 검증하였다. Bentler와 Chou(1987)에 따르면, 구조방정식 모델에서는 추정 모수 당 최소 5배에서 10배 정도의 표본 크기가 필요하다고 언급했으며, Baumgartner와 Homburg(1999) 역시 최소 5개 이상의 표본 크기를 제안했다. 그러나 본 연구의 대상은 상담관련 전공생으로 학부졸업이나 석사과정 이상이며, 상담을 1개월 이상 진행한 상담자로 모집에 있어 어려움이 존재했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표본의 크기를 선행연구에서 제안한 대로 추정 모수에 맞춰서 모집하여 변인들 간의 인과적 관련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둘째, 온라인으로 자료를 수집했다는 점, 본 연구의 참여자의 대다수가 여성이라는 점에서 본 연구의 결과를 전체 상담자 집단으로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온라인으로 자료를 수집할 경우, 대단위의 자료모집이 수월하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지만, 컴퓨터와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대상의 자료를 수집하기는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한편, 국외 연구에서는 성별은 다문화 역량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나(Pope-Davis, Reynolds, Dings, & Nielson, 1995), 한국의 경우, 남성들이 여성들보다 이주노동자들에 대해 더 부정적인 태도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김금미, 안상수, 2014).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오프라인에서도 자료를 수집하고, 남성 상담자

의 수를 할당하여 표집할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의 모형은 인종/민족적 소수자에 대한 인식 변량의 19%, 부정적 감정 변량의 15%, 행동의도 변량의 44%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인종/민족적 소수자에 대한 부정적 감정 변인은 선행변인인 인종/민족적 소수자에 대한 인식보다 설명력이 적었는데, 이는 부정적 정서를 설명할 수 있는 다른 변인들이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예를 들어, 김혜숙 등(2011)의 연구에서 소수집단에 대한 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중 하나로는 접촉빈도가 있었다. 또한 김애란(2014)의 연구에서도 외국인과의 접촉이 이들에 대한 정서적 태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도 관련하여 외국인 친구의 수와 해외거주경험을 조사했는데, 선행연구들과 달리, 두 변인 모두 종속변인들과 유의미한 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추후 연구에서는 접촉빈도를 비롯하여 구체적으로 어떤 변인이 인종/민족적 소수자에 대한 정서적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고 이를 통제변인으로 채택하여 정당한 세상에 대한 일반적인 믿음, 책임귀인, 인종/민족적 소수자에 대한 태도 변인들과의 관련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인종/민족적 소수자에 대한 책임귀인 척도를 제작하고, 소수자에 대한 인식 척도와 소수자에 대한 행동의도 척도를 타당화하지 않은 척도를 사용하였는데, 후속연구에서는 보다 타당화 과정을 엄격하게 수행하여 외국에서 개발된 척도가 우리나라 성인의 인종/민족적 소수자에 대한 책임귀인과 소수자에 대한 인식, 행동의도를 적절하게 측정하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김경숙 (2012). 간호대학생의 인종별 사회적 거리감 연구. *한국자료분석학회*, 14(4), 2039-2051.
- 기민도 (2019. 09. 22). 코리안 드림의 배신. *서울신문*.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90923001013&wlog_tag3=naver
- 김경화 (2011).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지도사의 동남아시아인에 대한 고정관념과 호감도 및 사회적 거리감.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5(3), 83-97.
- 김금미 (2010). 대학생의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다문화 수용적 행동: 계획된 행동이론의 수정모형 검증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5(2), 259-283.
- 김금미 (2011). 대학생의 탈북자에 대한 수용적 행동의도와 행동을 설명하는 변인들: 계획된 행동이론의 수정모형을 적용하여.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5(3), 1-16.
- 김금미, 안상수 (2014). 남녀대학생의 동남아계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다문화 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 계획된 행동이론의 수정모형에 기초하여.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9(3), 315-338.
- 김수정 (2015). 다문화 상담자의 초기발달에 대한 질적연구. *한국상담대학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애란 (2014). 차별관련 영상물 시청과 국내 거주 외국인과의 접촉 및 토론활동이 대학생들의 다문화적 태도 변화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용석 (2010). 사회적 바람직성 척도의 개발. *한국사회복지행정학*, 12(3), 1-39.
- 김용석 (2018). 사회적 바람직성 척도(SDS-24)의 타당화 및 적용. *사회복지연구*, 49(3), 87-114.
- 김유경 (2010). 다문화가족의 복지욕구와 정책 과제: 교육·지원서비스 및 사회참여욕구를 중심으로. *보건복지포럼*, 175, 45-62.
- 김윤정 (2018). 북한이탈주민 내담자와 남한 상담자가 지각하는 상담의 도움 및 도움되지 않은 경험: 개념도 연구법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은하, 김도연, 김수용 (2016).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이 일반 성인들의 화병증상에 미치는 영향: 분배공정성과 절차공정성을 중심으로. *상담학연구*, 17(5), 25-45.
- 김은하, 김도연, 박한솔, 김수용, 김지수 (2017). 한국어판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 척도.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9(3), 689-710.
- 김은하, 박승민 (2011). 작업동맹에 관한 국내 연구의 동향.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3(1), 1-25.
- 김은하, 전주원 (2019).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 개인적인 믿음과 일반적인 믿음에 따른 자존감, 우울, 동성애자에 대한 부정적 태도 및 계층차별주의 태도. *서강대학교 학생생활상담연구소*, 40(1), 1-21.
- 김은하, 정보현 (2018).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 집화가 긍정 정서, 부정 정서, 삶의 만족도, 가난에 대한 부정적 태도에 미치는 영향. *상담학연구*, 19(2), 323-342.
- 김현아, 조영아, 김요완 (2014). 탈북 1인 가구의 남한생활 경험에 관한 질적 연구. *보건사회연구*, 34(4), 321-353.
- 김혜숙, 고재홍, 안미영, 안상수, 이선이, 최인철 (2003). 다수집단과 소수 집단에 대한

- 고정관념의 내용: 유능성과 따뜻함의 차원에서 분석.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7(3), 121-143.
- 김혜숙, 김도영, 신희천, 이주연 (2011). 다문화시대 한국인의 심리적 적응: 집단정체성, 문화적응 이데올로기와 접촉이 이주민에 대한 편견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5(2), 51-89.
- 김혜영, 심혜원 (2014). 다문화아동상담 교육실태 및 상담자 역량에 관한 연구. 청소년학연구, 21(12), 339-373.
- 나진 (2017). 뉴스프레임과 위험단서가 수용자의 다문화 태도에 미치는 영향. 서강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다혜 (2019, 05, 02). 다문화가족 자녀, 차별, 학교폭력 경험 늘었다. 한겨레. <http://www.hani.co.kr/arti/society/women/892370.html>에서 검색.
- 배병렬 (2011). AMOS 19 구조방정식 모델링-원리와 실제. 도서출판 청람.
- 백근영 (2017). The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multicultural counseling training program based on Transformative Learning Theory (MCTP-TLT) for Korean counseling trainees working with Chinese international students.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백근영, 서영석, 김애란, 박금란 (2019).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Korean Racial/Ethnic Attitudes Scale. Manuscript submitted for publication.
- 백민경 (2011, 07, 27). 외국인 범죄...피의자만 있고 피해자는 없다?. 서울신문.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10728011021>에서 검색.
- 서준호, 이희경 (2014). 상담자의 진정성과 작업동맹의 관계에서 소진의 매개효과. 상담학연구, 15(5), 1717-1734.
- 선곡유화, 서우석 (2019). 청소년의 다문화 행동과 다문화 인식, 다문화 태도 및 다문화 행동 의도 간의 구조적 관계. 아시아교육연구, 20(1), 119-148.
- 신동준 (2012). 다문화사회 범죄문제의 사회적 맥락: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차별을 중심으로. 형사정책연구, 23(4), 183-215.
- 안정원 (2015). 외국인 환자 간호에 대한 간호사의 문화역량 구조모형.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양미진, 이동훈, 고흥월, 김영하, 남현주 (2012). 현장전문가가 지각한 다문화 청소년 상담의 특성에 대한 질적분석. 상담학연구, 13(3), 1181-1209.
- 양옥경, 박향경, 손가현 (2010). 이주노동자의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 정신건강과 사회복지, 35, 141-175.
- 위주원 (2013). 다문화 상담자가 지각하는 어려움과 극복방안에 대한 개념도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유진이 (2015). 외국인 범죄보도 예시에서 인종적 단서와 책임귀인 프레임이 수용자의 지각 및 판단에 미치는 영향.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길상 (2014, 05, 11). 다문화 학생, 학업중단·일탈행위 가능성 증가. 천지일보. <http://www.newscj.com/news/articleView.html?idxno=239153>에서 검색.
- 이사야 (2019, 06, 17). 성폭력 당해도 일터 옮기기 어렵고 신고 못하는 이주 노동자들. 국민일보.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

- arcid=0924083780&code=11131800&cp=nv에서 검색.
- 이정숙, 금명자 (2019). 상담 작업동맹의 이론적 이해 및 연구동향.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31(2), 345-371.
- 이현정 (2014). 결혼이주여성 대상 다문화 상담자들의 문화적 역량 관련 경험에 관한 탐색적연구. *디지털융합복합연구*, 12(2), 519-530.
- 임민정 (2014). 비판적 반성 중심의 다문화 교사교육을 통한 유아교사의 관점 변화. *어린이문학교육연구*, 15(3), 273-296.
- 정이화 (2014). 다문화가정 학생과의 접촉유형과 유형별 접촉빈도가 중학생의 외집단 호감도에 미친 영향. 지식과 자아 내 타자포섭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시민교육연구*, 46(3), 223-250.
- 주은선, 이현정 (2010). 결혼이주여성 대상 다문화 상담 관련 종사자들의 현장 경험에 대한 질적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29(4), 817-846.
- 최미경 (2015). 결혼이주여성의 자살정황에 관한 탐색. *한국사회복지질적연구*, 9(1), 61-78.
- 최중술 (2013). 사회복지사의 문화적 다양성 행동에 관한 연구: 계획된 행동이론을 중심으로. 위덕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통일부 (2019). 북한이탈주민 사회통합조사. https://hanaportal.unikorea.go.kr/hanaportal/Institution/Archive/?boardId=bbs_0000000000000008&mode=view&cntId=14&category=&pageIdx=
- 황해영, 김영순, 이춘양 (2018). 가정폭력을 경험한 결혼이주여성의 이혼에 관한 내러티브 탐구.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8(23), 909-927.
- 행정안전부 (2018). 2018 지방자치단체 외국인 주민 현황. https://www.mois.go.kr/firt/bbs/type001/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14&nttId=66841에서 검색.
- Aguiar, P., Vala, J., Correia, I., & Pereira, C. (2008). Justice in our world and in that of others: Belief in a just world and reactions to victims. *Social Justice Research*, 21, 50-68.
- Banks, A. J., & Valentino, N. A. (2012). Emotional substrates of White racial attitudes.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56, 286-297.
- Baumgartner, H., & Homburg, C. (1998). Applications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in marketing and consumer research: A review. *International Journal of Research in Marketing*, 13(2), 139-161.
- Be`gue, L., & Bastounis, M. (2003). Two spheres of belief in justice. Extensive support for the bidimensional model of belief in just world. *Journal of Personality*, 71(3), 435-463.
- Bentler, P. M. (1990). Comparative fit indexes in structural models. *Psychological Bulletin*, 107(2), 238-246.
- Bentler, P. M., & Bonett, D. G. (1980). Significance tests and goodness of fit in the analysis of covariance structures. *Psychological Bulletin*, 88, 588-600.
- Bentler, P. M., & C. Chou. (1987). Practical Issues in Structural Modeling. *Sociological Methods and Research*, 16(Aug), 78-117.
- Breckler (1984). Empirical validation of affect, behavior, and cognition as distinct components of attitud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 Psychology*, 47(6), 1191-1205.
- Burkard, A. W., & Knox, S. (2004). Effect of therapist color-blindness on empath and attributions in crosscultural counseling.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51, 387-397.
- Constantine, M. G. (2007). Racial macroaggressions against African American clients in cross-racial counseling relationship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54, 1-16.
- Correia, I., & Dalbert, C. (2007). Belief in a just world, justice concerns, and well-being at Portuguese schools. *European Journal of Psychology of Education*, 22, 421-437
- Correia, I., & Vala, J. (2003). When will a victim be secondarily victimized? The effect of observer's belief in a just world, victim's innocence and persistence of suffering. *Social Justice Research*, 16, 379-400.
- Correia, I., & Vala, J. (2004). Belief in a just world, subjective well-being and trust of young adults. In C. Dalbert, & H. Sallay (Eds.), *The justice motive in adolescence and young adulthood: Origins and consequences* (pp. 85-100). London, UK: Routledge.
- Crocker, J., Luhtanen, R., Broadnax, S., & Blaine, B. E. (1999). Belief in U.S. government conspiracies against Blacks among Black and White college students: Powerlessness or system blame?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5, 941-953.
- Cuddy, A. J. C., Fiske, S., Glick, P. (2007). The BIAS map: Behaviors from intergroup affect and stereotyp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92, 631-648.
- Dalbert, C. (1999). The world is more just for me than generally: About the Personal Belief in a Just World Scale's validity. *Social Justice Research*, 12, 79-98.
- Dalbert, C. (2002). Beliefs in a just world as a buffer against anger. *Social Justice Research*, 15, 123-145.
- Dalbert, C. & Maes, J. (2002). Belief in a just world as personal resource in school. In M. Ross & D. T. Miller (Eds.), *The justice motive in everyday life*. Cambridge, UK: Cambridge University Press, pp. 365-381.
- Dickson, G. L., Jepsen, D. A., & Barbee, P. W. (2008). Exploring the relationships among multicultural training experiences and attitudes toward diversity among counseling students. *Journal of Multicultural Counseling and Development*, 36, 113-126.
- Eagly, A., H., & Chaiken, S. (1993). *The psychology of attitudes*. Fort Worth, TX: Harcourt Brace Jovanovich.
- Esses, V. M., & Dovidio, J. F. (2002). The role of emotions in determining willingness to engage in intergroup contact.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8, 1202-1214.
- Fishbein, M., & Ajzen, I. (1981). Attitudes and voting behavior: An application of the theory of reasoned action. In G. M. Stephenson & J. M. Davis (Eds.), *Progress in Applied Social Psychology* (Vol. 1, pp. 253-313). London: Wiley
- Fiske, S. T., Cuddy, A. J. C., Glick, P. S., & Xu, J. (2002). A model of (often mixed) stereotype content: Competence and warmth respectively follow from perceived status and competi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2, 878-893.

- Psychology*, 82, 878-902.
- Fox, C. L., Elder, T., Gater, J., & Johnson, E. (2010). The association between adolescents' beliefs in a just world and their attitudes to victims of bullying. *British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80, 183-198.
- Goodall, C. E., Slater, M. D., & Myers, T. A. (2013). Fear and anger responses to local news coverage of alcohol-related crimes, accidents, and injuries: Explaining news effects on policy support using a representative sample of messages and people. *Journal of Communication*, 63(2), 373-392.
- Gushue, G. V. (2004). Race, color-blind racial attitudes, and judgments about mental health: A shifting standards perspective.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51, 398-407.
- Hafer, C. L., & Choma, B. L. (2009). Belief in a just world, perceived fairness, and justification of the status quo. *Social and psychological bases of ideology and system justification*, 107-125.
- Hettinger, V. E., & Vandello, J. A. (2014). Balance without equality: Just world beliefs, the gay affluence myth, and support for gay rights. *Social Justice Research*, 27, 444-463.
- Janus, A. L. (2010). The influence of social desirability pressures on expressed immigration attitudes. *Social Science Quarterly* 91(4): 928-946.
- Jost, J. T., Banaji, M. R., & Nosek, B. A. (2004). A decade of system justification theory: Accumulated evidence of conscious and unconscious bolstering of the status quo. *Political Psychology*, 25(6), 818-919.
- Jost, J. T., & Hunyady, O. (2005). Antecedents and consequences of system-justifying ideologies. *Current Directions in Psychological Science*, 14, 260-265.
- Kaiser, C. R., Dyrenforth, P. S., Hagiwara, N. (2006). Why are attributions to discrimination interpersonally costly? A test of system- and group-justifying motivation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32, 11, 1523-1536.
- Katz, A. D., & Hoyt, W. T. (2014). The influence of multicultural counseling competence and anti-Black prejudice on therapists' outcome expectancie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61, 299-305.
- Kay, A. C., Czaplinski, S., & Jost, J. T. (2008). Left-right ideological differences in system justification following exposure to complementary versus noncomplementary stereotype exemplars. *Europea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39(2), 290-298.
- Kleinke, C. L., & Meyer, C. (1990). Evaluation of rape victim by men and women with high and low belief in a just world. *Psychology of Women Quarterly*, 14, 343-353.
- Kogut, T. (2011). Someone to blame: When identifying a victim decreases helping.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47(4), 748-755.
- Lei, M., & Lomax, R. G. (2005). The effect of varying degrees of nonnormality in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12, 1-27.
- Lerner, M. J. (1977). The justice motive: Some hypotheses as to its origins and forms. *Journal of Personality*, 45(1), 1-52.
- Lerner, M. J. (1980). *The belief in a just world: A fundamental delusion*. New York: Plenum Press.

- Lipkus, I. M., Dalbert, C., & Siegler, I. C. (1996). The importance of distinguishing the belief in a just world for self versus other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2(7), 666-677
- Lucas, T., Alexander, S., Firestone, I. J., & Lebreton, J. M. (2007). Development and initial validation of a procedural and distributive just world measure.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43(1), 71-82.
- Lucas, T., Zhdanova, L., & Alexander, S. (2011). Procedural and distributive beliefs for self and others: Assessment of a four-factor individual differences model. *Journal of Individual Differences*, 32(1), 14-25.
- Major, B., Quinton, W., & McCoy, S. K. (2002). Antecedents and consequences of attributions to discrimination: Theoretical and empirical advances. In M. Zanna (Ed.), *Advances in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Vol. 34, pp. 251-330). San Diego, CA: Academic Press.
- Martens, M. P. (2005). The use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in counseling psychology research. *The Counseling Psychologist*, 33, 269-298.
- McClelland, D. C., Koestner, R., & Weinberger, J. (1989). How do self-attributed and implicit motives differ? *Psychological Review*, 96, 690-702.
- Mezirow, J. (1991). *Transformative dimensions of adult learning*. San Francisco: Jossey Bass.
- Neville, H. A., Coleman, M. N., Falconer, J. W., & Holmes, D. (2005). Color-blind racial ideology and psychological false consciousness among African Americans. *Journal of Black Psychology*, 31, 27-45.
- Norman, P., & Smith, L. (1995).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ur and exercise: An investigation into the role of prior behaviour, behavioural intentions and attitude variability. *Europea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25, 403-415.
- Owen, J. J., Tao, K., Leach, M., & Rodolfa, E. (2011). Clients' perceptions of their psychotherapists' multicultural orientation. *Psychotherapy*, 48, 274-282.
- Owen, J., Tao, K. W., Imel, Z. E., Wampold, B. E., & Rodolfa, E. (2014). Addressing racial and ethnic microaggressions in therapy. *Professional Psychology, Research and Practice*, 45, 283-290
- Ponterotto, J. G., Burkard, A., Rieger, B., & Grieger, I. (1995). Development and initial validation of the Quick Discrimination Index (QDI). *Educational and Psychological Measurement*, 55, 1016-1031.
- Pope-Davis, D. B., Reynolds, A., Dings, J. G., & Nielson, D. (1995). Examining multicultural competencies of graduate students in psychology. *Professional Psychology: Research and Practice*, 26, 322-329.
- Prislin, R., & Crano, W. D. (2008). Attitudes and attitude change: The fourth peak. In *Attitudes and attitude change*, Edited by: Crano, W. D. and Prislin, R. 3-15. New York, NY: Psychology Press.
- Reichle, B., Schneider, A., & Montada, L. (1998). How do observers of victimization preserve their belief in a just world cognitively or actionally? In L. Montada & M. J. Lerner (Eds.), *Responses to victimization and belief in a*

- just world* (pp. 55-86). New York: Plenum.
- Ridley, C. R. (2005). *Overcoming unintentional racism in counseling and therapy: A practitioner's guide to intentional intervention* (2nd ed.). Thousand Oaks, CA: Sage.
- Russell, D. W., Kahn, J. H., Spoth, R., & Altmaier, E. M. (1998). Analyzing data from experimental studies: A latent variable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pproach.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5*, 18-29.
- Sebby, R. A., & Johnston, L. M. (2012). Effects of victim innocence and BJW (belief in a just world) upon derogation of an ingroup/outgroup victim. *Psychology Research, 2*(2), 135-141.
- Shrout, P. E., & Bolger, N. (2002). Mediation in experimental and nonexperimental studies: New procedures and recommendations. *Psychological Methods, 7*, 422-445.
- Smith, K. B. (1985). Seeing justice in poverty: The belief in a just world and ideas about social inequalities. *Sociological Spectrum, 5*, 17-29.
- Sniderman, P. M., & Piazza, T. (1993). *The scar of race*. Cambridge, Mass: Harvard University Press.
- Soble, J. R., Spanierman, L. B., & Liao, H. (2011). Effects of a brief video intervention on White university students' racial attitude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58*, 151-157.
- Spanierman, L. B., Poteat, V. P., Wang, Y. F., & Oh, E. (2008). Psychosocial costs of racism to White counselors: Predicting various dimensions of multicultural counseling competence.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55*, 75-88.
- Sue, D. W., Arredondo, P., & McDavis, R. J. (1992). Multicultural counseling competencies and standards: A call to the profession. *Journal of Counseling and Development, 70*, 477-486.
- Sullivan, A. C., Ong, A. C. H., La Macchina, S. T., & Louis, W. R. (2016). The impact of unpunished hate crimes: When derogating the victim extends into derogating the group. *Social Justice Research, 29*, 310-330.
- Sutton, R. M., & Douglas, K. M. (2005). Justice for all, or just for me? More support for the self-other distinction in just-world beliefs.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32*, 637-645.
- Sutton, R. M., & Winnard, E. J. (2010). Looking ahead through lenses of justice: The relevance of just-world beliefs to intentions and confidence in the future. *British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46*, 649-666.
- Uhlmann, E. L., Brescoll, V. L., & Machery, E. (2010). The Motives Underlying Stereotype-Based Discrimination Against Members of Stigmatized Groups. *Social Justice Research, 23*(1), 1-16.
- Van Soest, D. (1996). The influence of competing ideologies about homosexuality on nondiscrimination policy: Implications for social work education. *Journal of Social Work Education, 32*, 53-64.

원 고 접 수 일 : 2019. 08. 23
수정 원고접수일 : 2019. 10. 10
계 재 결 정 일 : 2019. 10. 28

Counselors' Belief in a Just World for Others and Attitudes toward Racial/Ethnic Minorities: The Mediating Role of Attribution of Blame

Keun Young Baek

Myongji University

The present study examined the mediation effect of the attribution of blame on the link between belief in a just world for others (BJW-O) and attitudes toward racial/ethnic minorities by analyzing responses from 208 counselors. Results indicated that counselors with higher levels of BJW-O were more likely to attribute blame to racial/ethnic minorities for their difficulties in South Korea. This led to counselors' negative thoughts about racial/ethnic minorities, which in turn influenced their negative feelings and behavioral intentions toward them. The association between BJW-O and thoughts about racial/ethnic minorities was fully mediated by attribution of blame. The association between attribution of blame and negative feelings toward racial/ethnic minorities was fully mediated by thoughts about them. The association between thoughts about racial/ethnic minorities and behavioral intentions toward racial/ethnic minorities was partially mediated by negative feelings toward them. Implications for future research and counselor education are discussed.

Key words : belief in a just world for others, attitude toward racial/ethnic minorities, multicultural counseling, attribution of blame, counselors' attitudes